

## 전남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 '탄력'

해상풍력·전력망·고준위방폐장  
'에너지 3법' 국회 산자위 통과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기반 갖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영광 백수에 건설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의 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에너지 3법'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발전량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기반이 풍부한 전남이 지역 내, 지역 간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일보 2024년 11월 3·4·20일 보도>  
전남을 포함한 각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최대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실정이었다.

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177.9TWh)의 37%를 책임질

정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더해 더더욱 진행됐던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영광 한빛원전 부지내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영광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LH,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사들여 전세로 내놓을 듯

정부가 지방에 쌓여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전국 3000호 수준으로,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내놨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경기 침

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전담과 같은 1241가구에 이른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전담과 같은 415가구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의 경우 미분양 3598가구, 준공후 미분양 2450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 수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당시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광주시 남구와 무안의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전환, 분양한 바 있다.  
정부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등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박선 모엘



안영성 조리 명장



김봉중 교수



안톤 솔츠



정지아 작가

##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3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2025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 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3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5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3월 10일까지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光州日報社

- ▶ 6면 광주 소방청사, 32%가 20년 넘은 노후 건물
- ▶ 18면 이순철 위원이 본 올 시즌 KIA 타이거즈
- ▶ 22면 팔도 핫플 - 천안 '뚜주루빵돌가마마을'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바이탈뷰티



##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